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9. 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 FBI, '인종혐오 총기난사' 모방범죄 가능성 경고
 - 8.22 美 FBI와 국토안보부는 '버펄로市 총기난사 사건'*의 계획과 수법이 온라인에 유포되어 인종혐오적 모방범죄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며, 관련 징후 포착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
 - * 지난 5.14 뉴욕 버펄로市 소재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로 흑인 10명 사망
- 美, 'ISIS 훈련센터 설립' 테러조직 지원 시도자 기소
 - 8.28 美 법무부는 뉴멕시코州에 'ISIS 훈련센터'를 설립해 △ISIS 이념 교육 △공격 훈련 △지하디스트 피난처 제공 △해외 테러조직 지원 등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45세 남성 「허먼 월슨」을 기소
 - * 同人은 ISIS 전사 모집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

아·태평양

- 印尼, 발리 테러 주범 가석방 이의신청 검토
 - 8.23 「야손나 라올리」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은 지난 '02년에 발생한 발리 폭탄테러의 주범 「우마르 파텍」 가석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며, 반대의견 수용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언급
 - *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호주 정부의 항의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부언
- 경찰청, 9월 한 달간 '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' 운영
 - 8.29 경찰청은 테러·범죄 예방을 위해 국방부·행안부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허가없이 소지중인 총기·화약류·도검·전자총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
 - * 한편, 불법무기류는 가까운 경찰서 및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제출 가능하며,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中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 집중단속 예정

중 동

- 美, 자국군 공격 '시리아內 이란 연계 叛軍' 보복 공습
 - 8.24 美軍 중부사령부는 시리아 북동부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(IRGC) 연계 무장 叛軍의 로켓 공격으로 미군 3명이 부상당했으며, 이에 2차례 공습을 감행해 적군 2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
 - * 美軍은 ISIS 대테러전 지원을 위해 '15년부터 시리아에 주둔 中
- 이스라엘, 구호단체 직원 '테러 혐의' 징역형 선고
 - 8.30 이스라엘 법원은 국제구호단체 '월드비전' 직원 「할라비」에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'하마스' 일원으로 무기거래 자금 등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
 - * 월드비전측은 자금 관련 불법행위가 없다고 주장

아프리카

- 美, 수단 '테러지원국 해제' 후 자국 대사 再파견
 - 8.24 언론은 美 정부가 '97년 수단 주재 대사관의 대사를 임시 대리대사 수준으로 격하시킨 이래 25년만에 처음으로 정식 대사 파견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
 - * 미국은 수단에 대해 '92~'96년까지 「빈 리덴」이 체류했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대사 격하와 경제제재를 취했으나, '20.12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
- 리비아, 무장세력間 충돌로 최소 31명 사망
 - 8.28 언론은 北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무장세력 間 충돌로 민간인 포함 최소 31명이 사망하고 159명이 부상당했으며, '20년 휴전 이후 2년 만에 전면전 재발이 우려된다고 보도
 - * 리비아는 '14년부터 동서로 양분되어 내전을 벌였으며, '20년 UN의 중재로 휴전하였으나 작년 12월 예정되어 있던 대선이 무산되면서 권력 다툼 본격화

이스라엘 서안지역 유대인 겨냥 총격 테러

- '10.8.31 무장세력이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* 입구에서 주행중인 민간인 차량을 겨냥해 총기를 난사, 임신부 등 4명 살해(남 2명, 여 2명)
*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內 설치한 유대인 정착지원 지역
- 同 테러는 '09.11월부터 10개월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간접 회담 성사 후 美 워싱턴 D.C.에서 양측의 중동 평화구축을 위한 직접 협상('10.9.2~3)*이 예정된 시점에서 발생
* 이스라엘은 국경 정착촌 유지 대가로 팔레스타인측에 자국 영토 일부 양도 계획
- 하마스는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며,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평화협상을 막으려는 조치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
- 이에, UN 사무총장은 “이번 테러는 이스라엘-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훼손하려는 시도”라며,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 중단 촉구
- 또한, 이스라엘은 서안지역 하마스여단 사령관 등 관련 조직원 다수를 사살·체포하였으며,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同 무장조직 지지자 250여명을 체포하는 등 양측 모두 강경 대응

< 하마스(HAMAS) >

- (결성) 이집트 '무슬림 형제단'의 팔레스타인 지부소속 강경세력들이 1987년 제1차 '인티파다'(對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)를 계기로 결성
※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캐나다('02.11)
- (연계세력)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, 인민저항위원회(PRC)
- (핵심인물) 이스마일 하니예(최고 지도자)
- (활동지역) 팔레스타인 가자, 서안지구 및 레바논內 팔레스타인 난민캠프
- (활동수법) 이스라엘 軍·民 대상 폭탄테러, 총격, 로켓공격 및 납치
- (주요테러) '08.12~'09.1 이스라엘軍과 하마스간 '가자전쟁' 발발 800여명 사망
'19.5 '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와 연계하여 이스라엘 겨냥 로켓 700여발 발사, 이스라엘 주민 4명 사망, 80여명 부상

